

소비자를 사로잡은 이색 절화상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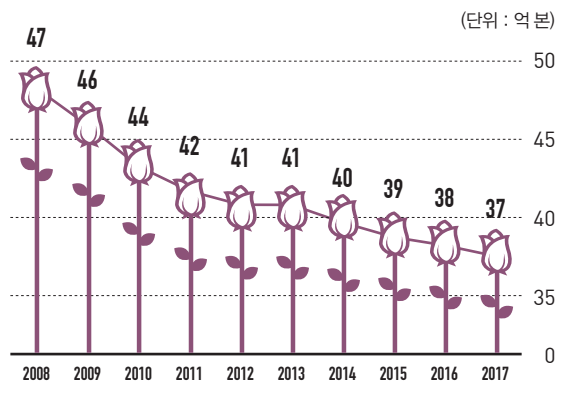
오사카지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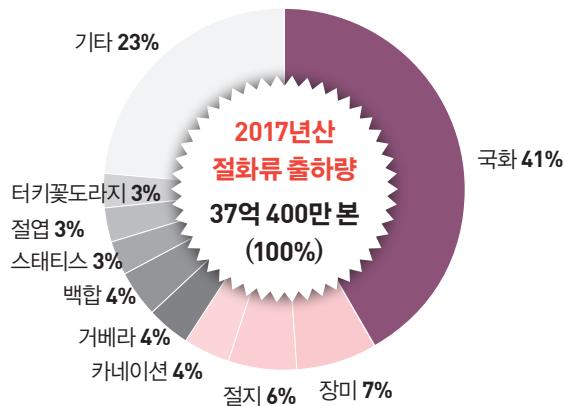
절화 수입량, 역대 두 번째를 기록해

- 일본 농림수산성 식물검역통계에 따르면 2018년 일본의 절화수입량이 13억 1,743만 본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역대 최대치의 절화 수입량을 기록했던 2012년에 이어 두 번째로 큰 규모인 셈이다.
- 절화 수입량 증가의 원인으로는 생산기반의 약화, 지속적인 무더위로 인한 출하량 하락 등을 꼽을 수 있다. 또한 절화류의 관세가 대부분 폐지되면서 해마다 수입공세가 점차 강해지는 추세다.

일본산 절화류 출하량



2017년산 일본산 절화 품목별 출하량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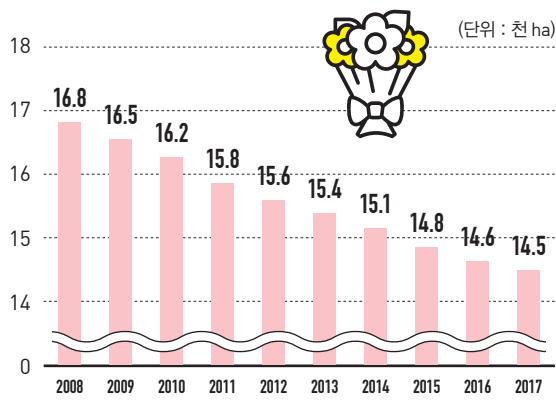
10년 사이 최대치를 기록한 국화류 수입량

- 절화 수입량이 크게 증가한 품목은 국화류였다. 지난해 수입된 국화류는 총 3억 4,108만 본으로 최근 10년 사이 가장 큰 규모의 수입량을 기록했다.
- 국화류 수입량이 증가한 가장 큰 원인으로서는 일본산 출하량의 감소를 꼽을 수 있다. 일본 농림수산성은 일본산

절화류 출하량이 최근 10년간 20%의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2017년에는 37억 본이 출하되면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 수입산 절화를 선호하는 판매자들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도 원인으로 꼽힌다. 이러한 경향은 슈퍼마켓을 중심으로 확대되는 추세며, 수입산 절화 중에서도 스프레이 국화와 카네이션의 선호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일본에서 국화를 가장 많이 수입하는 국가는 말레이시아다. 말레이시아산 국화는 지난해 1억 9,749만 본이 수입되며 전체 수입량 중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이외에도 베트남산, 중국산의 수입량이 두드러졌다.
- 베트남산 국화의 경우 최근 5년간 꾸준한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향후에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베트남이 저렴한 인건비와 생산경비 등을 바탕으로 가격경쟁력을 내세우고 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일본산 절화류 재배면적



출처 : 일본 농림수산성(www.maff.go.jp), 일본 야노경제연구소(www.yano.co.jp)

특색을 갖춘 절화를 선호하는 일본소비자들

- 일본 절화시장의 수요는 안정세를 나타내고 있다. 반면 시장 확대의 계기를 찾아내기에는 어려운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제철이 아니라거나, 개성 있는 색깔, 형태 등을 갖춘 절화 등은 큰 인기를 끌고 있다.
- 일본의 종묘회사 사카타노타네에 따르면 꽃가루가 날리지 않는 꽃도라지, 가을에도 출하할 수 있는 품종의 해바라기 등의 판매량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원예회사 산토리플라워즈에서는 보라색 카네이션 ‘문더스트’, 파란색 장미 ‘산토리 블루 로즈 어플로즈’를 판매하고 있다. ‘문더스트’의 경우 차별화를 추구하는 소매업체에서 선호하고 있으며 ‘산토리 블루 로즈 어플로즈’는 1송이에 3.564엔(약 36,700원)의 고가임에도 판매량이 높은 편이다.

특색 있는 상품 개발과 전략적인 생산 전략 필요

- 일본의 절화시장은 수요를 확대하기 위해 특색 있는 상품 개발에 주력하고 있다. 이에 일본시장 진출 및 수출량 증대를 꾀하기 위해서는 특색을 갖춘 상품 개발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수요가 많고 생산성이 높은 품목을 집약적으로 생산해야만 경쟁력을 높여나갈 수 있을 것이다.
- 판매채널 역시 꽃집, 슈퍼마켓 등에서 인터넷, 정기배송 등으로 확대되고 있다. 따라서 수출업체의 경우 오프라인매장 외에도 다양한 판매채널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 일본 화훼업체들은 소비자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꽃을 생활화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캠페인을 시도하고 있다. 이에 국내 화훼산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플라워트릭’, ‘1테이블 1플라워’와 같은 소비확대 전략을 최대한 활용하고 이에 더해 더욱 다채로운 마케팅을 펼쳐야 할 것이다.

일본 주요 종묘회사의 인기 화훼상품

기업명	상품명
사카타노타네	터키도라지꽃(리시안서스), 해바라기 ‘빈센트’ 등
산토리플라워즈	문더스트(Moondust), 산토리 블루 로즈 어플로즈(SUNTORY blue rose APPLAUSE)
타키이종묘	해바라기 ‘선리치 시리즈’ 등



1. 문더스트

2. 산토리 블루 로즈 어플로즈